

SKT, 빅데이터 기술로 소상공인 돕는다

11번가·현대캐피탈과 혁신금융 서비스 최장 6개월 미래 매출액 예측해 선정산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혁신금융 서비스인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에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25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자동 선정산'은 판매금액의 80%를 매일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래 선정산'은 최장 6개월 분의 미래 매출을 예측해 한번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선정산 서비스 2종은 SKT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의 신규 서비스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11번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신용 평가로 대출이 불리했



모델이 '11번가 공식 선정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SKT와 11번가, 현대캐피탈은 새롭게 추가되는 2종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 선정산'은 고객이 11번가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발송 완료하면 구매 확정 대기 상품의 판매금액 80%를 매일 자동으로 사전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2개월 연속 월 매출 30만원 이상인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0.1%의 이용료로 제공된다. 최초 3개월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1년 약정 후 자동 갱신된다. 고객의 구매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 선정산'은 판매자의 최장 6개월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매출을 한번에 지급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업계 최대 수준인 7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온라인 신청 당일 입금이 이뤄진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AI면접 당락 결정은 '시기상조'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이루다' 사태 이후 인공지능(AI)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최근 언택트 면접 방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이 채용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말 민간 기관 339곳, 공공 기관 93곳이 채용 절차에 AI 면접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은 AI 면접의 신뢰성이 부족한 만큼, 많은 기업과 공공 기관이 인적성 검사를 대체하거나 참고용으로만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전KDN 등은 AI 면접 점수를 전형에 반영해 당락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아직까지 어떤 입력 데이터가 결과에 기여했는지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큰 한계를 갖는다.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AI 면접에서, 특히나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당락

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AI를 중요한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AI의 설명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면접을 참고용을 넘어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택트' 현상으로 AI 면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쳐야 한다. 실제 채용 결과 분석한 결과, AI 면접의 심사 결과와 사람 면접관이 합격생들에게 부여한 점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아직 AI의 판단 결과를 점수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탈락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공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를 평가한다면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차별 문제로 애써 개발한 채용 시스템을 폐기해야 했던 아마존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echo@

현대차그룹, 미국서 최고 안전성 입증

현대·기아·제네시스 17개 차종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5개 차종과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2개 차종 등 총 17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7개 모델, 기아는 8개, 제네시스는 2개 모델이 선정됐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선정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 차종의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제네시스G70 ▲G90 등 2개 차종과 ▲현대차 팰리세이드, 넥쏘 2개 차종 ▲기아는 K5이다.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는 ▲벨



제네시스 G70. /현대자동차그룹

로스터 ▲쏘나타 ▲코나 ▲투싼 ▲베뉴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K3(현지명 포르테) ▲쏘울 ▲스텔라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등 기아 7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1월 1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열 번 생각하고 행동. **48년생** 지출을 해야 변화가 온다. **60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 **72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84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 37년생** 밤을 건다야 친란한 새벽을 본다. **4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61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7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85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웃듯이 해결.
- 3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50년생** 가장 큰 복구는 자신의 성공 뿐. **62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74년생** 갈광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86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막자.
- 39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51년생** 시간만 축내는 일은 인제 그만. **63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 **75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8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
- 40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52년생** 금전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64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76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88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 41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 **53년생**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77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89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 저축을 가심.
- 42년생** 나이 들어도 외모에 신경 써라. **54년생** 체면치레하다 지갑이 텅 빈다. **66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7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잘 못은 없는지 생각. **90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
- 43년생** 일단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라. **5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7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79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9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 44년생** 증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56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68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92년생** 상대를 존중해주면 마음을 얻어 보람이다.
- 45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라. **57년생** 증거는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하나 고민. **69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81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93년생**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 유의.
- 46년생** 구두쇠 작전은 옛말. **58년생** 길이 없는 곳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70년생** 생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82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94년생**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 47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 마무리. **59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 **71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8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95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언행 조심.



김상회의四季

액운이 길운으로

해가 바뀌는 설날 즈음에는 으레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습관처럼 너도나도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한다. 누구에게나 복이 들어가면 좋은 일일 텐데 이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복은 살면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말한다. 인생의 좋은 일이다. 자기 인생에 많은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를 기반으로 할 때 이 말은 조금 달라진다.

'복 많이 받으세요'가 '복 많이 지으세요'로 살짝 형태가 달라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을 짓지도 않고 바라거나 지어 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큰 복이 들어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사주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운이 모두 복이 되어 들어올까. 조상공덕으로 운이 있을 경우라면 플라도 좋은 사주도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는다. 선대에서나 당대거나 복을 짓는 일을 해야 재물이 복으로 바뀌어 들어온다. 지은 만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들어오는 복은 없다는 말이다. 복을 짓는 건 의외로 평소 시간 약속만 잘 지켜도 복을 짓는 것이며 생활하면서 남에게 양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복을 짓기 위한 기도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기도와 불공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마음 한 번 더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꾸준히 복을 지으면 액운이 길운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불운이 힘을 잃고 행운이 힘을 얻는다. 올해부터는 인사를 살짝 달리 '복 많이 지으세요'로 해보는 것도 자신이 짓는 복의 크기만큼 받는 복덩이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7		1	5		6
	1		2		5
		5	6	8	9
2	1			3	5
	6				4
5	9			1	2
		4	8	7	2
	2		4		1
1		3	2		4

3	1	7	8	9	5
7	2	6		9	1
5	3		8	4	6
		2	6		
9	6		7	2	8
1	9	5		3	8
2	4	8	7	3	1

<http://argo9.com>

정답

7	2	9	8	6	1
8	1	9	6	7	5
5	6	2	1	8	7
2	8	1	9	5	6
6	7	1	9	2	8
9	9	8	7	8	1
1	2	6	8	9	7
2	9	8	5	7	1
9	5	7	9	6	1

1	6	8	2	9	8
7	9	9	2	6	1
2	2	8	5	7	9
6	8	9	9	2	7
8	1	9	9	8	2
9	2	7	1	8	6
5	7	1	6	9	9
2	8	2	7	1	5
9	9	6	8	2	1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44호	